

중국에서는 길조의 붉은 색 내의가 인기 절정

중국에서 행운의 대표적인 색으로 되어 있는 붉은 색은, 해마다 정월이 되면 중국의 패션·컬러(fashion color)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명절에 옷을 구입할 때, 우선 염두에 두는 색이 붉은 색이라고 한다. 원래 중국에서 붉은 색은 경사스러운 징조의 색으로 공인되고 있으며, 특히 정월의 분위기에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여 여성들의 내의도 붉은 색이 가장 인기가 좋다.

큰 도시의 번화가에 있는 백화점 2층의 부인복 전문 판매코너에는 “기꺼이 길상(吉祥)을 드리며, 붉은 색 내의를 판매하다(喜洋洋, 送吉祥, 赤色 內衣展販)”라는 현수막아래 있는 내의들은 모두 붉은 색뿐이다. 정월이면 하루에 200세트나 팔리며, 재고도 하루 판매량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서 중년의 판매원이 판매대에 있는 내의를 보여준다. 점원도 “이는 내의의 디자인이나 쾌적성 때문이라기보다는 붉은 색 때문에 내의를 사간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놀라며 말한다.

진열된 붉은 색 내의에는 유명 브랜드도 있지만 이름 없는 브랜드도 있다. 많은 구매자로 붐비는 상황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판매의 호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도 할인해 주고 있다. 상하이의 “고금(古今)”이라는 브랜드는 80%까지도 할인해 주고 있다.

중국에서 “미년(未年 : 양'羊'띠)은 운수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내 사주(四柱)는 양이므로 그럴수록 좋은 운수를 위하여 붉은 색 내의를 입고 싶다”고 하며, 붉은 내의를 사가는 사람도 있다. 광주(廣州)시의 지방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붉은 색 내의를 사가는 사람 중, 양띠의 사람이 반 정도는 차

지하고 있다고 한다.